

# '6자 구도'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선 돌입

민주당 임문영·국힘 안태욱·혁신 배수진  
진보 전주연·소속 신지혜·무소속 구분기  
수성 노리는 민주 맞서 야권 대거 출마



임문영 (9만1천원)·구분기 (3억3천778만원)·전주연 (3억355만원)·신지혜 (3천100만원) 후보 순이다. 병역 의무 대상인 남성 후보 3명 모두 군 복무를 마쳤다. 6명 모두 제남은 없다. 후보 가운데 전과 기록을 신고한 후보는 전주연 후보가 유일하다.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5건의 전과 기록을 신고했다. 역대 입후보 횟수는 신지혜 후보가 6회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주연 후보 3회, 안태욱·배수진 후보 각 1회, 임문영·구분기 후보 각 0회 순이다. /양시원기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전 국회의원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 출마로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6파전으로 확정됐다.

특히 광산을 보궐선거는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보기 드물게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원내 야 3당, 무소속 후보까지 가세한 다자 구도로 치러지게 돼 이목이 집중된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등록 현황에 따르면 광주 광산을 재보궐 선거에는 민주당 임문영 (0)·국민의힘 안태욱 (0)·조국혁신당 배수진 (47)·진보당 전주연 (5)·기본소득당 신지혜 (8)·무소속 구분기 (41) 후보 (기호순)가 등록을 마쳤다.

하이텔 1세대 IT 전문가 출신인 임문영 후보는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 (AI) 전략위원회 상근부위원장, 민주당 디지털특별위원장을 역임했다. 이재명 정부의 디지털·AI 정책 핵심참모로 알려져 있다.

안태욱 후보는 '보수 협치' 광주에서 40년 가까이 보수의 길을 걸어 왔으며 국회 정책연구위원 (2급 상당), TBN 광주 교통방송 본부장,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을 역임했다.

배수진 후보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과 혁신당 대변인을 지낸 변호사로 지난 22대 총선에서 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전주연 후보는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광주시의원을 역임했다. 현재 돌봄서비스·노동조합 광주지부장을 맡고 있다.

기본소득당에서는 당 상임대표를 지낸 신지혜 후보가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하고 표밭을 다지고 있다.

춧발행동 공동대표로 활동한 구분기 후보는 무소속으로 출마표를 던졌다.

후보별 재산 신고액은 배수진 후보가 19억8천843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문영 (13억8천694만원)·안태욱 (5억1천1



투표용지 인쇄 17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한 인쇄소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 비례 투표용지가 제작되고 있다. /연합뉴스

## 광주·전남 단체장 후보 46% 전과 기록

단체장·교육감 후보 10% '병역 미이행'

김희수 화순군수 후보 261억 재산 신고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광주·전남지역 광역·기초단체장, 교육감 후보들의 재산, 병역, 전과 기록 등이 공개됐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등록 현황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광주 5개 구청장, 전남 22개 시장·군수 선거에 후보 등록을 마친 78명 중 36명 (46.1%)이 전과를 신고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교육감 후보 4명 가운데 전과를 신고한 후보는 없다.

진보당 이석하 영광군수 후보와 무소속 최진열 고흥군수

후보가 각각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5명 중에서는 국민의힘이 정현 후보, 진보당이종욱 후보가 각 1건, 2건의 전과가 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28명 중 11명 (39.2%), 진보당 5명 전원, 조국혁신당 13명 중 6명 (46.1%), 국민의힘 2명 전원, 정의당 2명 중 1명, 무소속 27명 중 9명 (33.3%) 후보가 전과가 있었다. 이와 함께 광주·전남 광역·기초 자치단체장과 교육감 후보 가운데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후보는 약 10%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광역·기초 자치단체장과 교육감 후보 중 병역 의무 대상자(남성)는 78명이다. 이 가운데 8명 (10.2%)이 군 복무를 하지 않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5명 중 병역 의무 대상자인

남성은 4명이다. 이들 모두 병역 의무를 마쳤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교육감 후보도 여성 1명을 뺀 나머지 3명 모두 병역 의무를 이행했다. 전남·광주 27개 시·군 후보는 총 78명으로 여성 후보 2명을 제외한 76명이 병역 대상자다. 이중 8명 (11.3%)이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지역 출마자 가운데 최고 자산가는 201억1천523만원을 신고한 무소속 김희수 화순군수 후보로 나타났다. 초대 통합특별시장 후보 중에는 민주당 민형배 후보가 18억3천266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무소속 김광만 후보는 2억285만원으로 5명 후보 가운데 최저액을 신고했다. 교육감 후보 중 최고 자산가는 16억8천514만원의 이정선 후보였다.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 후보 중에는 19억8천843만원을 신고한 조국혁신당 배수진 후보가 가장 많았다. 후보들의 평균 재산 신고액은 통합특별시장 7억9천236만원, 기초단체장 13억927만원, 교육감 7억4천388만원,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7억5천994만원이다. /양시원기자

전남광주 여성 후보 28.7%·청년 9.8%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전남·광주 여성 후보 비율이 지난 지방선거보다 늘어난 반면, 청년 후보 비중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0시 기준 전남·광주지역 지방선거 출마자 775명 중 여성 후보는 287명 (223명)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전체 후보 822명 가운데 여성 비율이 22.9%였던 것과 비교해 5.8%p 증가한 수치다. 45세 이하 청년 후보는 전체의 9.8%에 불과했으며 통합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 교육감·기초 단체장에 등록된 청년 후보는 전무했다. /변은진기자

2026. 6. 3. 실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정보 카드뉴스**

**'사전투표제도' 선거권 침해한다?**

헌법재판소, "문제없다." 합헌결정  
(헌법재판소 2025. 12. 18.)  
#사전투표 #부정선거의혹 #팩트체크

합헌 판단 이 유 1 "사전투표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 일반 인터넷망과 완전 분리된 **선거전용통신망**
- 선거 부정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실물 투표지 존재**
- 투표용지발급기 사전투표관리관에 인계 시 **봉합·봉인된 상태 유지**
- **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의 사전투표 상황 참관

합헌 판단 이 유 2 "현재의 사전투표기간은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사전투표자가 선거일 투표자에 비해 짧은 숙려기간을 갖더라도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등을 통해 후보자에 대한 정보 획득 가능
- 사전투표제도는 **선거권 행사 기회 보장·투표를 제고**

합헌 판단 이 유 3 "사전투표제도는 비밀투표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

- 투표용지의 일련번호 표기 형태인 **바코드는 선거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미포함**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생애 마지막 캐네이션이 될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방에서 맞는 어버이날은 어르신에겐 그저 평소보다 좀 더 시린 날일 뿐입니다.

월 2만 원으로 '어버이날 선물' 전하기

ARS 무기명 후원 **060-708-1004** (1만원)

후원문의 **1811-1004**

QR 인식